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

2025년

차 례

머리글 3

1. 수령영생의 대기념비-금수산태양궁전 5

2. 혁명전통교양과 승리전통교양의 기념비적건축물들 16

1) 조선혁명박물관 16

2)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20

3)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23

3. 청년중시사상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31

1)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2

2) 청년운동사적관 36

3) 조선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전위거리..... 42

4.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46

1) 과학자들을 위한 거리들과 주택지구 46

(1) 은하과학자거리..... 47
(2) 위성과학자주택지구..... 50
(3) 미래과학자거리..... 52

2) 과학기술전당..... 56

3) 연풍과학자휴양소..... 62

5.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66

1)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66

2) 평양중등학원과 평양초등학원..... 71

(1) 평양중등학원 71

(2) 평양초등학원 74
3)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77
(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77
(2)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82
6. 웃음소리 높아가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 87
1) 릉라인민유원지 87
2) 문수물놀이장..... 91
3) 미림승마구락부 95
4) 마식령스키장..... 99
5) 양덕온천문화휴양지 105
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109
맺는글 117

머 리 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건축부문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으며 주체건축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건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건축물들에는 해당 나라의 사상과 정책, 미학관이 반영되고 당대의 시대상이 비끼게 되며 그런것으로 하여 건축은 정치의 연장으로, 축도로 된다.

조선에 훌륭하게 일떠서고있는 건축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조선인민의 정서와 미학관이 그대로 반영된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와 혁명전통교양과 승리전통교양의 거점들, 청년중시, 과학중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사상이 구현된 기념비적창조물들, 또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이 모든것은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건축의 창조자, 향유자도 인민대중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건축물은 조선로동당이 실시하는 정치의 직관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느 한 외국인은 최근에 일떠선 조선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건축형식과 건축물의 질, 건설속도, 주변풍치와의 조화 등 모든 면에서 건설분야의 표본들이라고, **김정은**각하께서는 그 창조물들을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시였다고, 이곳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인류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이라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머지않아 온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것이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도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리념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그것은 건축물들에도 그대로 구현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으로,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빛나고있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여년간 조선에서 새로 일떠서거나 훌륭히 개건된 기념비적건축물들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통하여 펼쳐보이려고 한다.

1. 수령영생의 대기념비-금수산태양궁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단순한 건축예술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혁명의 성지입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 거룩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가장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려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해나가도록 하시려 수령영생위업에 관한 혁명리론을 정립체계화하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해주시고 금수산태양궁전개건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수령영생위업은 수령을 생전의 모습으로,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사업이다.

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는 렬차에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꼭같이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시였다.

사실 수령의 서거후 령구를 어디에 모시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령의 령구는 수령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장 빛나게 추억할수 있는 력사적인 장소, 수령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과 도덕의리심이 가장 열렬하게 펼쳐질수 있는 뜻깊은 곳에 모셔야 한다.

한평생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으로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우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보아도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마음으로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시는것은 응당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으신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 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함께

모시는것은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의 혁명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들이 꼭 하여야 할 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금수산의사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주석궁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거기에서 사업하시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절절한 요구와 념원마저 사양하시였으며 위대한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야전렬차에서 사업하고 생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굳게 믿어온 조선인민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시는것은 조선인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시키는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다 합쳐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처럼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시여 장군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함께 모신 다음 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성심은 한해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의 최고성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전무결하게 갖춘 금수산태양궁전을 숭엄히 일떠세워 세계건축계의 기적과도 같은 거대한 사변을 낳았다.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태양의 대전당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 자주 나오시여 구체적인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생홀과 립상홀로부터 하나하나의 시설물들과 벽면들 그 어디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1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모시는 태양의 성지로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2012년에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가, 미술가들이 설계한 도면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구히 모실 방의 꾸림새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영생홀은 장군님을 뵈옵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모두가 장군님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며 장군님의 영생을 바라는 곳으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지는 가장 고결하고 숭엄한 곳으로 훌륭히 꾸려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데 이어 금수산태양궁전의 립상홀과 울음홀, 훈장보존실과 사적물보존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금수산태양궁전을 40여차례나 찾으시면서 태양궁전의 립체와 공간을 그 기능과 사명, 성격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출중한 위인적풍모가 그대로 비끼게 구성하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군군인들은 수령영생위업도 수령결사옹위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영생홀과 립상홀, 울음홀과 훈장보존실, 사적렬차와 승용차, 사적배보존실들과 회의실들을 비롯한 태양궁전내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리였다. 조선인민들은 궁전내부와 외부공사에 필요한 비품들과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가며 투

쟁을 벌리였다.

참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의 영생홀과 립상홀로부터 하나하나의 시설물들과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지극한 정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인민이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사는 성스러운 태양의 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에 인사를 드리고 휴식도 할수 있게 태양궁전광장을 공원화하고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록지를 조성하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가운데 원림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온갖 꽃이 피여나는 대화원속의 금수산태양궁전!

일군들은 깜짝 놀랐다. 광장에 화원을 조성한다는것은 누구도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릉이 있는 성지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설 때부터 엄숙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던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놓으신 넓은 광장에 화단을 조성하고 원림화하여 그윽한 향기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데 대한 새롭고도 혁신적인 발기는 어떻게 하면 태양의 성지를 최상의 경지로 꾸리겠는가를 고심하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해 안타까움으로 가슴태우던 일군들의 눈을 번쩍 틔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는 온 나라 인민의 순결무구한 심정까지 합친 새롭고도 독특한 명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의 록지구획에 대한 보다 생동하고도 구체적인 표상을 안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종류의 잔디를 심어 글도 새길수 있고 문양도 새길수 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록지를 조성하고 사이사이에 길을 내주며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록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손색이 없게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였다.

금수산태양궁전 록지구역에 몸소 새 품종의 잔디씨를 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뵈오면서도 일군들은 고결한 도덕의리의 위대한 세계를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고결한 충성은 위대한 현실을 펼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받들어 인민군군인들은 궁전외부의 록지조성과 공원건설에서도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조선인민들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록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충성의 구슬땀을 바쳤다. 그리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지반조성과 시설물건설, 잔디와 화초, 나무심기 등 방대한 공사를 8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보는 희한한 전경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공원구내를 돌고 또 돌며 연방 탄성을 올릴뿐이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칭송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시려 얼마나 많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진정 그것은 단순한 원림예술의 산물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향기그윽한 화원속에 길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성이 꽃피운 천하의 절승, 사회주의 선경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의 형성방향과 건설과정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였고 손수 새 품종의 잔디도 심으시면서 공원을 수령영생의 대화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혈의 세계에 떠받들려 이곳은 말그대로 인류의 태양을 끝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이 백화로 피여난 태양칭송의 대화원으로 꾸려지게 되였다.

세계에는 이름난 공원들이 적지 않지만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류의 태양을 끝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백화로 피여나고 만록으로 우거진 태양칭송의 대화원은 없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세계굴지의 공원이 꾸려짐으로써 금수산지구가 태양의 성지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으며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이 더욱 감동깊게 펼쳐지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꾸리기공사에 참가한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공사를 통하여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조선인민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구상의 첫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큰 역할을 한 수령들이 서거후에는 그 고귀한 넋과 시신까지 모욕당한 비극적사실을 력사는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빛을 뿌리는 조선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의 력사가 꿋꿋이 이어져 혁명적수령관이 어떻게 발현되여야 하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깊이 깨우쳐주었다.

참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의 영생홀과 립상홀로부터 하나하나의 시설물들과 비품들, 한포기의 잔디와 한그루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지극한 정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바쳐온 조선인민의 지성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도 울릴 그지없이 지극하고 열화같은것이며 이것은 조선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진실하고 억척같은것인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계에는 국가령도자들과 위인들의 력사적공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릉묘들과 기념당, 성지들이 적지 않지만 금수산태양궁전처럼 인류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고 내용과 형식, 규모에서 사소한 손색도 없이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린 대전당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혁명의 대전당으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뜨거운 지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는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는 조선의 기념비적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보여줌으로써 기념비적건축물의 대표작, 본보기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외국의 벗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한평생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그분들의 거룩한 존함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시기 위해 기울이신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충정의 세계를 깊이 느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모셔진 사진문헌들과 정중히 보존된 렬차와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고귀한 한생의 상징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은 만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집으로,

절세위인들의 영생의 대기념비로 소중히 간직될것이다.

벨라루씨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단장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회수와 로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위인들의 혁명활동력사이다,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신뢰심이 어려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대표단 단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의 위인들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충성에 떠받들려 태양의 궁전으로 보다 훌륭하게 일떠섰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온 세상을 밝히는 주체의 횃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찾군 하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 이렇듯 아름다운 공원으로 훌륭히 꾸려진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 보아도 위대한 수령들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김정은**각하와 조선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잘 알수 있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터놓았다.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뵈오니 그분들께서 우리가 나아갈 투쟁의 길을 가리켜주시며 뜨겁게 격려해 주시는것만 같아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전 세계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끝없이 그리워하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은 만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다함없는 경의를 드린다.

2. 혁명전통교양과 승리전통교양의 기념비적건축물들

주체의 혁명전통과 승리의 전통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할 때 혁명위업은 반드시 실현되게 된다.

혁명전통과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혁명은 한두해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진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혁명전통과 승리의 전통교양에 힘을 넣지 않으면 그들에게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바로 심어줄수 없고 혁명의 명맥을 고수해나갈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전통교양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최우선중대사로 내세우고 혁명전통과 승리전통의 교양거점인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대국보관으로 훌륭히 개건하였다.

1) 조선혁명박물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 **김정일**혁명박물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변된 조선혁명박물관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이며 혁명대학이다.

2017년 3월 30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새로 꾸려진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새겨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자랑찬 력사를 립증하는 수천점의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이 내용별로, 시기별로 새로 진렬전시된것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만점의 사적물과 자료들이 전시된 100여개의 참관호실들이 정중하면서도 품위있게 꾸려져있다.

이와 함께 새로 제작한 사판, 모형들을 비롯한 전시품들의 직관성과 립체성이 보장되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 등이 새로운 경지에서 실현되였으며 해당 시기의 력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이 반경화로 생동하게 형상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이 오늘과 같이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이고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혁명박물관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과 전시방안들을 여러 차례 지도해주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박물관으로!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변함없는 결심이고 의지였다.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2011년 12월의 그 나날 조선인민의 가슴

저미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기에 뜻깊은 2012년의 2월 16일을 맞으며 만수대창작사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함께 모시도록 하신데 이어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

2015년 2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결정서의 첫 조항에 바로 조선혁명박물관을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새롭게 꾸리는 등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밝히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 구성을 잘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기도 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당시)을 꾸리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것을 비롯하여 박물관을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시키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개건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맡은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학술연구원들도 혁명사적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종합체계화하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이다.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전시된 모든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에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력사의 그날 조선혁명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데 대한 문제, 박물관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 력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물들을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박물관의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세상에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투쟁사를 전하는 박물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혁명박물관과 같이 최대의 정중성과 과학성, 직관성을 보장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 혁명박물관은 없다.

참으로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주체혁명의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개건한것은 력사적사변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빛나게 이어져오고있는가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며 조선혁명박물관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관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2)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훌륭히 완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건립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운 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빛내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양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세상에는 자기 조국을 지켜 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세운 기념비나 묘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나라의 령도자가 직접 묘주가 되여 렬사들의 묘를 일떠세울것을 발기하고 건설의 전 과정을 지도해주었으며 건설현장에까지 나와 렬사묘의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훌륭히 완공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준적은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인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평양시의 인민군렬사묘들의 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평양시주변의 산을 낀 좋은 곳에 부지를 잡아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렬사들의 묘를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 언제인가는 렬사묘의 문주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한 감정이 살아나게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설계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방도와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7월 1일 완공단계에 이른 인민군 렬사묘(당시)를 찾으시였다.

전경도앞에 이르시여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주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주를 특색있고 무게있게 건립하였다고,

문주가 멋있다고, 문주를 휘날리는 당기와 공화국기로 형상하니 인민군 렬사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고있다는것이 조형예술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문주에 전쟁기간을 의미하는 《1950》, 《1953》이라는 년도를 부각시켜 년대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렬사들의 묘라는것이 잘 안겨오게 하였다고, 렬사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숭엄한 감정에 잠길수 있게 문주를 잘 형상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렬사묘의 이름을 뜻이 깊게 잘 달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렬사묘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라고 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에 몇명의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료해하시고 인민군렬사묘를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인민군렬사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렬사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렬사묘의 중심에 일떠세운 기념탑을 돌아보시면서 기념탑총창의 상징성을 실감이 나게 더욱 부각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의 수첩에 손수 수정형상할 총창의 형태를 그려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명절이나 기념일때에는 당과 국가, 군대간부들이 다 여기에 찾아와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2013년 7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는 500여명의 렬사들이 안치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수령만세를 높이 부르며 원쑤들과의 최후결사전에로 용감무쌍하게 나아간 인민군렬사들의 영웅적 위훈이 사회주의조선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그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조국수호정신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세운 투쟁업적과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줄수 있게 각 도들에 있는 인민군렬사묘들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여 조선의 각 도소재지들에는 인민군렬사묘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전승세대의 넋이 새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렬사들의 영생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된것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목숨으로 지키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한 영웅적인 참전렬사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영원불변한 사랑과 믿음, 숭고한 의리의 표시로 되며 조국의 무궁번영과 미래에 피와 생명을 헌헌히 바친 유명무명의 전사들, 위대한 년대에 드리신 위대한 령도자의 최대의 경의, 위대한 년대의 후손들의 진함없는 경의로 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한 외국의 벗들이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조선의 새 세대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곳으로 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아일랜드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

렬사묘의 설계와 시공, 군상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완성시켜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인민군렬사들의 묘비에 새겨진 영웅들의 생일과 전사한 날을 보며 조국을 위해 자기의 생을 바친 그들의 나이와 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이야말로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선렬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는 훌륭한 나라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훌륭히 건설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영웅들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되고있다. 영웅들의 조국수호정신과 위훈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렬사묘의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그 설계와 건설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신 **김정은**동지는 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분이시다.

3)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령도업적을 체득시키는 위대성교양장소이며 후대들에게 전세대들이 수령님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기본거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만년보물고이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이며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백전백승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굳센 의지를 심어주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 반미계급교양의 기본거점이다.

1953년 8월 17일에 개관되였고 1974년에 새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2013년 7월 27일을 맞으며 홀과 전시관들, 대형반경화와 전시물 등 모든 공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승업적과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꾸려졌으며 전승기념탑을 중심으로 공훈무기전시장을 비롯한 야외전시장을 훌륭히 갖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이 지구가 짧은 기간에 최상급의 종합적인 교양거점으로,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것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창조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로동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대에 전승 60돐전까지 전승기념관을 대담하게 새로 건설하고 이 지구를 훌륭히 꾸릴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은 자신께서 직접 틀어쥐고 내밀겠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기념관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7월 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고 기념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개관을 앞둔 시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건설장을 무려 18차례나 현지지도하시고 백수십차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기념관의 모든 공간과 요소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혁명의 만년재보로 일관시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무력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모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때없이 보고올리는 수많은 문건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하나하나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받들려 전승기념관 중앙홀에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색조각상으로 형상되여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중심으로 대계단과 천정 등 중앙홀의 전반 요소들이 숭엄하게 형성된것을 비롯하여 기념관의 모든 세부들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잘 보여줄수 있게 복종되고 지향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기념관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형상과 영상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하시며 수령님의 위인적풍모가 최상의 경지에서 안겨오게 하기 위한 창작원칙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만수대창작사를 3차례나 찾으시고 전설적영웅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자그마한 꾸밈도 없이 형상하도록 구체적세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창작과정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면불휴의 헌신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업적을 담은 백수십상의 수령형상작품들이 완성되였으며 전승기념관의 학술배렬과 전시사업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최대한 부각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업적을 집대성한 전시관을 새로 꾸리도록 이끄시였다.

학술내용구성안과 학술배렬도를 보아주시고 전시형식과 방법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무력령도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기념관을 단순히 유물전시장이 아니라 조선인민을 전세대의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훌륭한 혁명사상교양중심지, 계급교양거점으로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따라 전투에 따르는 자료들과 실물로 된 전투기술기재들 그리고 인민군군인들의 전투모습과 화선생활을 보여주는 사판, 반경화, 랍상,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전시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상황이 그대로 안겨오는 진렬전시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시기 서울에 제일먼저 돌입한 312호땅크해설판을 비롯한 공훈무기전시장의 무장장비해설판에는 군사기술적제원이 아니라 혁명사적, 전투위훈자료가 반영되도록 하시였으며 로획무기전시장에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끌어다놓고 조국의 령해에 침범하였다가 침몰된 적함선들,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의 잔해와 함께 사진들이 적들의 패배상을 여실히 보여줄수 있게 크게 전시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기념관과 함께 전승기념탑을 시대의 기념비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건설작전을 펼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면모에 맞게 기념탑문주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현판의 위치를 다시 정해주시고 문주와 《승리》상의 품위를 더 잘 살리기 위한 명안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사상성과 건축미학적형식, 규모와 학술내용구성의 모든 면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본보기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모신 《승리》상을 정면에 안고 드넓은 지구에 웅장하고 위용있게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기적도 단숨에 창조하는 주체조선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본때를 만방에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길이 전하는 민족의 대국보이며 대전당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훌륭하게 일떠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조선의 고귀한 재부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이 안아온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백전백승의 전통을 이어 영원히 승리의 한길

로만 나아가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고있다.

하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고 저저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제반미투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하는 영원한 수령의 전승관으로 빛나게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감상록에 자기들의 심장의 웨침을 다음과 같이 남기였다.

《나는 이 전람관을 돌아보면서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와 발톱까지 무장한 련합세력을 타승한 위대한 조선인민의 희생성을 잘 알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였다. 전쟁시기 조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위대한 전사, 렬사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린다.》, 《미제국주의의 부당한 지배를 반대하여 승리한것이 공화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밝혀준데 대하여 감동되였다.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힘은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뭉친 조선인민의 단결에 있다는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력사적이고 획기적인 웅장한 기념물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60년전 세월은 이미 흘러가고 세계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우정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60년전 평양을 여러번 목격하였을 때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지금의 평양은 훌륭한 도시로 되고 인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1958년 3월에 내가 속한 군단이 조선에서 철수하던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군부대에 오시여 조선의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도 수여해주시고 몸소 환송도 해주시였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수상님과 조선인민의 두터운 우정에 감사를 올리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우리는 중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친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웰남공산당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당으로서 사회주의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과 활동경험, 고귀한 성과들에 대해 보다 깊은 리해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성과와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우리는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도록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거점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혁명교양, 애국주의교양을 중시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활동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단장은 건축미학적으로,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의 자욱을 느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대표단 단원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성에 대하여 새 세대들이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는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전승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며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조선에 주재하고있는 무관들과 대사관성원들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 자기들의 심정을 감상록에 한자한자 새겨썼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오늘과 같은 교양적의의가 있는 훌륭한 박물관으로 꾸려짐으로써 후대들이 미제의 침략사를 잊지 않고 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배우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짧은 기간에 전승기념관이 훌륭히 일떠선것을 놓고 보아도 조선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알수 있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히 우리들의 고귀한 재부이다.》

《훌륭한 박물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정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주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군사사상, 불멸의 전승업적과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대기념비적 창조물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조선의 만년보물고로 일떠세우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영웅조선의 승리의 기상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숭고한 애국충성과 불멸의 공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있다.

3. 청년중시사상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솟아난 대기념비적창조물들가운데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창조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말썽거리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청년들 때문에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 사태까지 빚어지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가 매일같이 창조되고 세상에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는것은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 같은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이다.

언제나 조선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을 굳게 믿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 주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장성강화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오신 청년중시정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청년들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1)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청년교양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위대성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이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3개의 계단식발전소로 건설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은 조선의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당시)을 펄펄 휘날리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조선청년들은 지난 기간 겹쌓이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들을 박차고 발전소건설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2015년 4월에 찾아주시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9월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1호발전소 언제공사를 지난 8월 28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전구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였다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보시고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에는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과 애국의 피더운 심장으로 만난을 과감히 뚫고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청년들의 애국충성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증견자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다음해 청년절까지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 주체혁명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수백만 청년대군을 부른 기치였다.

공사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청년돌격대원들의 겨울나이준비도 친히 헤아려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정과 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은 청년건설자들의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열정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청년들을 믿고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 총궐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 조선의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지만 3호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투쟁이였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 청년건설자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영광의 5월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마련할 맹세를 다짐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진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청년전위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성에 떠받들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완공되였다.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고 백두청춘들에게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이라는 최상의 믿음과 가장 고귀한 칭호들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백두전역에는 단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가 웅건장중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년 4월 22일 완공된 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조선청년들은 당의 결심을 관철하는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고 최상의 믿음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산기슭에서 엄혹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리며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날은 단순히 강줄기를 막고 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우는 과정만이 아니라 주체혁명의 만년대계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수행의 나날이였다.

《백두청춘대학》으로 자랑높은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조직으로서의 청년동맹의 위력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이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며 승리이다.

10여년간에 걸치는 자연과의 간고한 대격전속에서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조선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맹장대군이 자라났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평범한 근로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원정철소대》가 태여났으며 수많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영웅으로, 일군으로, 청년강국의 어엿한 주인공으로 성장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조선청년들의 무한대한 힘과 슬기가 총폭발되고

조선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뿌리를 두고 조선로동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최고의 높이에서 구현한 곧바로의 정신, 드세찬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일관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붉은기전통이 창조된 백두대지에 애국의 고귀한 피와 땀을 뿌리며 청춘대기념비를 온 세상이 부럽게 높이 일떠세운 조선영웅청년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위대한 **김정은**청년강국의 주인공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2) 청년운동사적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청년운동사적관을 꾸리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운동사적관이 건설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찬 력사를 펼치시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위인칭송의 대기념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운동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시기 위하여 청년운동사적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 영예로운

임무를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짧은 기간에 청년운동사적관을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집대성된 사상교양거점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년운동사적관이 건설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청년운동령도사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청년강국의 귀중한 재보가 마련되고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 훌륭한 교양거점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 전국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청년운동사적관은 청년강국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였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총서관과 전시실들, 혁명사적물보존실 등으로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년 1월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총서홀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청소년들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립상을 색조각상으로 모신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총서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르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실들과 혁명사적물보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전시실들에 정중히 모신 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재보,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령도사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언제 어느때나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못내는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처럼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고 청년중시사상을 변함없는 전략적인 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니 우리 청년동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영웅적인 청년조직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령도사와 청년운동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청년들의 투쟁력사를 잘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이 준 과업을 빛나게 관철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참으로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웅장하게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청년운동사적관이 일떠섰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청년들을 기적적인 승리와 위훈만을 아로새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여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이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 기술, 공보 및 대외관계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소년운동강화발전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위인상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사적관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각하께서 청년동맹조직과 소년단조직에 얼마나 크나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대표단 단장은 감상록에 위대한 령도자들의 손길아래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절감하였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였다고 썼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당과 수령이 안겨주는 과업이라면 기어이 결사관철하는 조선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조선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청년중시정치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새 세대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청년동맹의 력사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세상에는 청년조직들이 많아도 조선의 청년동맹과 같이 장구한 기간 당과 수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강화발전되여온 강철같은 조직은 없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이 정말 부럽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청년사업경험과 성과들을 적극 따라 배우겠다.

3) 조선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전위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구역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특색있게 일떠선 전위거리는 청년중시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인 조선청년들의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불가항력의 투쟁이 떠올린 자랑찬 청춘대기념비이다.

청년들모두를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은 평양건설의 번영기가 제일 고조된 시기에 주체건축발전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청춘들의 거창한 활무대를 수도의 대건설전구에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서포지구에 웅근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이 방대한 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였다.

여기에는 수도건설과정을 통하여 조선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성장시키고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젊은 주력부대, 미더운 열혈청춘들의 투쟁기세로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가속화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웅심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의 노도의 기세와 고귀한 명예와 어울리는 현대적인 새 거리를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건설력량편성으로부터 설비, 자재보장대책, 정연한 지휘체계확립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탄원한 청년들에 대한 축하와 환송모임들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돌격대의 명칭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로 명명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2023년 2월 25일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천지개벽을 무조건 일으키고야말 열정과 투지와 자신심에 넘쳐있는 청년전위들을 고무해주시고 착공의 뢰성을 우렁차게 울려주시였으며 새세대 청년들의 투쟁과 전진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기발을 몸소 수여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금주고도 사지 못할 청춘시절의 자서전에 나의 수도, 나의 평양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위훈의 사연을 새겨넣을수 있게 《나의 청춘시절》이라는 글발이 씌여진 일기장을 보내주시고 건설경험과 기능이 부족한 돌격대원들이 난관앞에 주저할세라, 힘겨워할세라 갖가지 식료품, 과일들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며 용감히 전진하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층한층 솟구치는 건축물들의 면모와 더불어 나날이 억세여지고 슬기로와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끌끌한 모습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온 나라에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으며 전승 70돐 경축행사대표로 불러주시고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때에는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국가발전의 강력한 주축을 이룬 청년들을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용감무쌍한 투사로,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정을 다해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전위거리건설전역을 기적과 위훈창조의 용암으로 끓게 한 열원이고 원동력이였다.

로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애국청년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며 기초굴착공사에 일제히 진입한 건설자들은 시작부터 철야격전을 들이대면서 일판을 드세게 내밀었다.

허리치는 감탕속에서도, 거대한 천연암반이 막아나설 때에도, 굴착기마저 삼켜버리는 수렁창앞에서도 《조선청년행진곡》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진을 멈추지 않은 이들이 바로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단련된 조선청년들이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석박산기슭의 전승용사들과 세상을 놀래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던 전세대 영웅들이 자신들을 지켜본다는 자각을 안고 삼복철의 무더위와 때없이 쏟아지는 폭우속에서도 순간의 정체와 답보를 몰랐다.

청춘의 열정과 투지를 백배하며 날마다 혁신을 창조해가는 청년건설자들의 지칠줄 모르는 공격정신에 의해 8월말까지 고층살림집들이 키를 다투며 경쟁적으로 솟아올라 새 거리의 자태를 기본적으로 드러냈다.

서포지구로 달려온 청년군인들도 전위거리의 상징으로 되는 중요한 건설대상을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제일가는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혁명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전위거리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시대를 대표하며 력사에 남을 위훈을 세우려는 미더운 청년전위들의 기개는 더욱 용솟음쳤다.

건설물의 질이자 존엄높은 당의 권위라는 투철한 정치적자각과 강의한 정신으로 돌격대원들은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모든 공사대상들을 후세에 길이 물려줄 재부로 되게 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새세대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값높이 내세워주며 중대한 혁명과업을 통채로 맡겨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은 청년들의 정신세계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현대적인 새 거리의 완공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조직력과 단결의 힘을 과시한 의의깊은 장거이다.

하기에 2024년 5월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도 끊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름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흘러간 보람찬 1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충성과 애국을 배우고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철의 신념을 억척으로 벼린 조선청년대군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골간, 전도양양한 주력부대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가장 엄혹한 난관을 박차고 솟구쳐올라 청년전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전위거리는 청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내세워주고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키워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수도 평양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전위거리는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조선의 청년전위들의 불같은 애국열의가 응축된 위대한 시대의 자랑찬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하기에 전위거리를 참관한 외국의 벗들은 조선청년들의 힘으로 희한한 거리를 일떠세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것은 오직 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한결같이 격찬하였다.

4.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오늘 남에게 얽매인 기술의 노예가 되면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정치적자주권과 존엄마저 지켜낼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폭발시켜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분발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있다.

1) 과학자들을 위한 거리들과 주택지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는 마땅히 당에서 맡아 풀어주어야 합니다.》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자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의도이다.

(1) 은하과학자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는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건설된 살림집지구는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은하과학자거리는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정책이 구현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 등 10여개의 공공건물들, 아동공원, 소공원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거리가 새로 일떠섰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된 과학자살림집거리는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면모와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과학자살림집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새로 훌륭히 일떠선 거리를 《은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였다.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조선의 과학자들이 궁전같은

희한한 집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혜택을 남먼저 누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겨줄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였다.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시기 위해 몸소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인민군대와 사회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자재보장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과학자살림집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게 훌륭히 완공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2013년 2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인민군군인들과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하여 과학자살림집지구는 날이 갈수록 자기의 특색있는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그러던 2013년 7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살림집 건설장에 나오시여 륜환식도로를 따라 줄지어 솟아오른 살림집들이 멋있다고,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외부만 보아도 들어가보고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을 훌륭하게 완공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날의 당부를 심장으로 간직한 전체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일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8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건설장에 또다시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7월에 오시였을 때보다 퍽 달라진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든다고, 깨끗하고 손색이 없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2013년 9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과학자살림집지구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고,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하과학자거리는 주택지구건설의 표준화,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살림집건설에서 이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며칠후인 9월 11일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그후 련일 온 나라의 관심과 축복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2)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며칠전에는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멋있게 건설하여 안겨주고 오늘은 훌륭히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안겨주게 됩니다.》

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에 필요한 력량편성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불과 몇개월사이에 수십동에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한 구획내 모든 건물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 외벽타일붙이기를 장마철전에 끝내고 내부공사에 력량을 총집중하였다.

2014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자고, 그러자면 건축물마다에서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자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물을 백점, 만점짜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공사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철야전을 벌림으로써 당창건 69돐까지 주택지구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2014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고, 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014년 10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준공식이 진행된후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현대적인 살림집에 입사한 과학자들은 어머니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최첨단돌파전을 드세게 벌려 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다.

(3) 미래과학자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호안을 따라 조화롭게 들어앉은 수천세대의 초고층 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은 외벽이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되여 화려한 거리의 웅자를 한껏 드러냈다. 새 거리의 상징인 53층살림집은 금시라도 지구를 박차고 오르는 위성처럼, 다시 보면 이슬맺힌 꽃잎을 활짝 펼친 한폭의 그림마냥 안겨온다.

멋들어지게 일떠선 현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화려한 봉사망들, 이채롭게 꾸려진 휴식터와 공원들…

참으로 조선로동당의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이 확고히 구현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주체건축예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이런 희한한 문명의 세계를 10년도 아닌 1년동안에 현실로 펼쳐놓았다.

인민이 리용할 건축물들은 시대를 대표하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표본이 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문명세계를 펼칠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거리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면불휴의 령도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끊임없이 이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하늘길에 오르시여 건설장의 모습을 일일이 부감하시고 그길로 현장에 나오시여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이 누리게 될 최고의 문명을 창조해야 하였기에 그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히 거리의 중심축도 새로 정해주시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주택도 건설하며 건물들의 형식을 지난 시기의 건설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을 거듭 틔워주시였다.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과학자들에게 금방석을 펼쳐주시려는 다심한 그 사랑에 떠받들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부엌이 손색없이 꾸려지고 고급가구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새 거리에 즐비하게 일떠선 봉사시설들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일의 바쁘신 속에서도 150여건의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형성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신 조선인민을 위해 그렇듯 옥을 다듬고 별을 새기듯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궁궐같은 초고층살림집들과 창광상점과 영화관을 비롯한 희한한 봉사망들이 보란듯이 솟아올랐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정녕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흘러온 인류력사와 더불어 지구상에는 적지 않은 기념비들이 세워졌다. 이름있는 인물이나 력사적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옹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거리가 통채로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기념비로 세워진 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된 오늘 조선인민은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철두철미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전하는 력사의 기념비라고 목청껏 부르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을 두고 국제사회계에서 찬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수많은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입사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네팔정부 부수상 겸 녀성, 어린이 및 사회복리상은 **김정은**각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도 없고 믿기도 힘든 희한한 현실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도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조선의 친애하는 동지들이 이룩하고있는 성과 그리고 부강번영하는 조국건설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조선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르헨띠나공산당의 한 성원은 조선의 건축물들이 정말 훌륭하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것은 조선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 비방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인민을 위한 이와 같은

멋쟁이창조물들을 일떠세운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원수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광을！》, 《사회주의조선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외국의 벗들은 물론 각국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펼쳐진 화폭－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새 모습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 베네수엘라신문 《베아》, 도이췰란드 MS려행사인터네트홈페지를 비롯한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21세기의 인민거리》,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커다란 충격》 등의 제목과 함께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과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특색있게 편집하여 집중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네트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 대인기를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래형의 독특한 건물들이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는 시대에 평양에 펼쳐진 새로운 식의 특색있는 거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이러한 건축물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에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전하였다.

체스꼬신문 《쁘로스쩨욥스까 쁘라브다》는 《모든것이 전혀 다르다, 사진으로 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미래

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조선의 참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수백장의 사진들을 편집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자기의 소감을 신문 《더 뉴 워커》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을 비롯한 크고 현대적인 집들을 국가가 지어 과학자, 로동자, 농민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안겨준것이였다.

참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시책이 꽃피는 나라 조선은 사회주의 본태가 약동하는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의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본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은 건축형식과 건축물의 질, 건설속도, 주변풍치와의 조화 등 모든 면에서 건설분야의 표본이다.

이런 훌륭한 거리, 현대적인 살림집과 과학기술전당을 인민들에게 통채로 선물로 안겨주신 **김정은**각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것이다.

2) 과학기술전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은 설계도 우리 식으로 하고 시공도 우리 식으로 한 건축물이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기념비적창조물입니다.》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웅장하게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되고 날로 발전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따라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전당을 로동당시대의 국보적인 건축물로 완공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부지선정으로부터 건물배치, 실내형성의 모든 요소에 이르기까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우선 부지선정에서부터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이전에 쑥섬에는 극히 적은 인원이 리용할수 있는 전혀 실리가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설이 계획되여있었다.

2014년 6월 1일 쑥섬을 찾으시여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떠세우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을 과학기술로 비약하고 인재가 차넘치는 나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쑥섬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을 꾸리기로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유서깊은 쑥섬에 전체 조선인민들을 위한 과학기술보급거점이 꾸려지게 되였다.

또한 실내형성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2015년 10월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시여 중앙현관홀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작품을 정중히 모시였다고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현관홀공간이 넓은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홀의

량쪽에 정서적인 휴식공간을 더 조성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였다.

과학기술전당가까이에 호텔급의 과학자숙소를 배치하고 리용에 편리하게 기본건물과 외랑으로 련결하였으며 전당의 내부에는 상점과 식당, 책방, 청량음료매대, 휴계홀들은 물론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기능도 충분히 갖추어주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위한 과학의 섬, 배움의 섬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건물의 성격과 사명을 정확히 표현할수 있도록 형상적주제를 옳게 설정하고 모든 구성단위와 구성요소들을 복종시킴으로써 립면형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기념비적건축물이다.

과학기술전당설계에서는 과학기술보급거점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원자구조를 형상적주제로 선정하고 건축립체를 원자모형으로 형성하였다.

세계를 보는 눈을 형상한 과학기술전당마크를 기본건물의 정면에 부각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요소들을 건축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형상적주제에 복종시키도록 하였다. 중심관통홀부분의 원형지붕은 원자의 핵을 형상하고 작은 원형지붕들은 핵의 둘레를 도는 전자들로, 굵은 띠모양의 타원형지붕을 씌운 건축립체는 전자들의 자리길을 형상하여 립체감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건물채양의 돌출부분과 유리로 마감한 벽체부분에 V자형장식기둥들을 반복배치하고 수평장식선을 강조하여 든든히 결합된 원자구조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의 기본건물은 물론 과학기술상징탑과 과학자숙소를 비롯한 주변의 건축물들에 이르기까지 형상적주제를 보다 명백히 살리도록 하는데 복종시켜 형성상 통일성과 조화성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건물정면의 앞에 세운 과학기술상징탑은 펜촉우에 원자구조모형을 놓은것으로

형성함으로써 쑥섬이 과학의 섬이라는것,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것이 주체조선의 의지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은 실내공간구성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실용성을 완벽하게 보장한 기념비적건축물이다.

현관홀을 2개층의 관통홀로 해결한데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작품을 2층부분에 높이 모시고 밑부분을 꽃화단으로 장식함으로써 현관부형성을 새로우면서도 종심이 깊고 시원하게 해결하였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계단식휴계홀을 계획하고 디딤단들에 앉음판들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구형레드전광판을 보면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구형레드전광판우에 운반로케트를 형상한 모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전당의 상징성을 잘 살리도록 하였다.

홀들에 열람탁들과 콤퓨터들을 갖추어놓고 휴식구역들과 통로구역 공간들에 모형을 놓거나 화단을 만들어놓아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실내형성에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서의 사명이 뚜렷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내전시관들의 빈자리에 콤퓨터열람탁을 추가배치하여 공간리용률과 장서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가동형과 느낌형, 조작형의 전시물들을 제작설치하여 누구나 전시물들을 직접 다루어보면서 과학기술을 깊이있게 다지도록 하였다. 하여 각이한 자료들을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수 있고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봉사기지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실용적인 건물로 되게 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록색건축기술을 비롯한 최신건축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에네르기절약형건물, 록색건물로 건설한 기념비적건축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기술전당을 에네르기절약형건물, 록색건물로 건설할데 대하여 밝혀주신데 따라 전시홀뿐 아니라 숙소와 보조건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열에네르기를 리용한 난방보장체계가 구축

되고 건물지붕과 일체화된 빛전지판, 강안도로쪽에 분리식으로 설치된 빛전지판들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경영활동에 리용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 관통홀부분의 내부벽체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내록화기술을 도입하고 방울식관수체계를 세워 록색화함으로써 전당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수 있게 하였으며 실내마감에 보다 친환경적인 기능성록색건재들을 리용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본보기, 국보적인 건축물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이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이며 정보교류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에는 조선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가정들에서도 국내콤퓨터망으로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통해 과학기술발전을 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어른들뿐 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는 이곳은 말그대로 과학의 대전당이다.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배움의 전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느껴지는바가 크다. 향학열에 불타는 이들의 모습에서 머지않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 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보았다.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뻬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장은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과학기술전당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 배울수 있는 훌륭한 학습장소이다. 모든 조건과 환경, 시설들이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완벽하게 꾸려진 이곳을 돌아보며 조선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에 차넘치는 과학탐구의 열기는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과학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된 나라,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들에서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교육중시사상이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누구나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는 과학기술보급기지라고 찬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파키스탄신문 《엘렉션 타임스》,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 싱가포르의 TV《아시아소식통로》, 에스빠냐의 에페통신, 로므니아의 메디아팍스통신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도 《조선의 대동강반에 펼쳐진 절경》, 《과학기술전당은 어떤 곳인가?》, 《신비롭게 비약하는 나라》 등의 제목을 달고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광범히 소개하였다.

3) 연풍과학자휴양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휴양소를 지어주려고 구상하고계시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치아름다운 이곳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지어주기로 결심하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을 직접 틀어쥐고 내밀었습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조선로동당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안겨주는 금방석이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비약하는 조선에 희한한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속에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시대의 걸작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한폭의 그림처럼 솟아오른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이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금방석이다.

과학자휴양소에는 조선로동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축형성과 구성, 요소들에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휴양각과 종합봉사소, 다용도야외운동장,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 록화물방영실, 낚시터 등 휴양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쯘히 꾸려져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일떠선 과학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이다.

2013년 8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여 경치좋은 연풍호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설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2014년 1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는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를 찾으시였다.

2013년에 몸소 배를 타시고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신데 이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현지에 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풍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이곳에 세상에 다시 없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다.

2014년 5월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휴양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8월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이 역시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소, 휴양각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내부시공을 비반복적이면서도 독특하게 하고있는것이라고, 서로 떨어져있는 건물들 사이에 외랑을 설치함으로써 휴양소를 하나로 통일시킨것도 특색있으며 건물지붕재와 벽타일의 색갈은 물론 건물기둥에 붙인 석재도 품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비품들,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지열랭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잔디와 관상용꽃관목심기 등 휴양소주변과 호안정리를 잘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건설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하루빨리 충성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는 투쟁을 벌려 과학자휴양소 건설을 완공하였다.

2014년 10월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휴양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비품들,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륜전기재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사랑의 자욱을 또다시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휴양소의 중심건물인 종합봉사소를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식사실과 연회장은 물론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도 흠잡을데가 없으며 전자도서실, 협의실, 록화물방영실,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받아들인것이 좋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령에네르기,

령탄소, 록색건축방향으로 나가는것만큼 과학연구부문과 설계부문에서 새 세기 건축개념을 알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어머니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조선의 과학자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영원한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이다.

5.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구현한 기념비적건축물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후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귀중한 보배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믿고 내세우시며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관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숭고한것이다.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념원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실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새로 훌륭히 꾸려진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평양중등학원과 평양초등학원, 세상에 둘도 없는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들에서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진정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선의 아이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소리이다.

1)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훌륭하게 꾸려진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 같은 보육교양시설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정을 나누며 보람있게 사는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일 그리워하는것도 물질적부가 아니라 인간의 뜨거운 정인것이다. 아이들, 특히 부모없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나 부모없는 아이들문제가 존재하고있지만 국가와 사회가 그런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재고아들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그 사랑으로, 전후에 나라의 방방곡곡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세우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던 그 정으로 후대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

엄혹한 시련이 조선의 매 가정들에 가슴아픈 상처를 남기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처입은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마음도 깊이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슴속에 잊을수 없는 숭고한 화폭으로 새겨져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 후 천사만사로 중대한 국사가 겹쌓여있었지만 원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2014년 2월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를

지도해주시고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로 자랑떨치는 인민군대의 한 군부대를 건설에 투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4년 6월과 8월에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건설장을 찾고 찾으시며 건설이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2014년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워 그들모두를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야 부모없는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관전실바닥에 타일을 붙이였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면이 너무 매끄러워 여기로 다니는 아이들이 넘어질수 있으니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일깨워도 주시고 원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방온도를 제대로 보장해주도록 강조도 해주시였으며 어린 원아들은 밖에 나가 놀게 하는것보다 내정에 나와 해빛쪼이기와 바람쏘이기를 하면서 놀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같다고 다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2015년 1월 1일 언제나 마음한끝을 행복에 넘쳐있을 원아들에게 두고계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며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설을 쇠는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조선인민은 숭고한 화폭앞에서 누구나 눈물을 흘렸다.

설맞이공연마감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어주신 궁궐같은 자기들의 새 집이 정말 좋다고 자랑하며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원아들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던것이다.

정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원쑤들에게는 그처럼 강의하고 단호하며 대담무쌍하신 위대한 장군이시건만 인민의 진정과 아이들의 눈물앞에서는 솟구치는 격정을 감추지 못하시는 위대한 인간이시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부모잃은 불행이 천대와 멸시로 이어졌을 아이들이 세상만복을 다 누리는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인민은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이제 조선의 사랑하는 원아들도 나라의 역군들로 훌륭히 성장하여 오늘의 눈부신 궁전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사회주의대가정의 큰집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원아시절에 주제가처럼 부르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이 땅우에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솟아오른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은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의 소중한 꿈과 밝은 미래가 아름답게 꽃펴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축도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를 난문제로, 경제적부담으로 여기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중시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을 받는 조선의 원아들은 참으로 행운아들이다.》

이것은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참관한 외국인들속에서 울려나온 찬탄의 목소리이다.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참관한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원은 원아들을 위해 이렇듯 최상급의 보육기지를 꾸려주고 그들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여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천품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는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였다.

조선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에는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의 보육원, 교양원, 의사를 비롯한 많은 성원들은 원아들의 생활을 항상 곁에서 돌봐주고있다. 서방의 가치관으로써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나라들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들로 치부되고있다. 허나 조선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이 온갖 특전과 특혜를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밝게 웃으며 마음껏 뛰노는 원아들의 얼굴에서는 한점의 그늘도 구김살도 찾아볼수 없다. 조선의 앞날은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은 아동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의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훌륭한 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어린이건강보호제도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아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책화하여 실현한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2) 평양중등학원과 평양초등학원

(1) 평양중등학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중등학원이 훌륭합니다.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2016년 7월 3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 만사람의 심금을 또다시 울리였다.

평양중등학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이다.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본보기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평양중등학원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인민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연건축면적이 1만여㎡에 달하고 수십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들이 있는 교사,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기숙사, 관리건물, 보조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을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2016년 7월 새로 건설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교실들마다에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비품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을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게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과 실내수영장, 다기능체육홀을 멋들어지게 꾸려놓았으며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기숙사도 흠잡을데없이 건설했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중등학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몇해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평양시에서 초등학원건설도 당에서 정해준 날자에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의 모범을 본받아 각 도들에서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다음해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 준공식이 2016년 7월 18일에 진행되였다.

평양중등학원은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이 응축되여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학원이다.

숭고한 후대사랑의 찬가인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외국의 벗들이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스위스공산당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후대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태여나서부터 당과 국가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정속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특히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며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이것은 부모없는 설음이 있을세라 더욱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앞날의 유능한 인재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화폭이다.

친부모의 정과 사랑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겁고도 다심한 그이의 은정속에 원아들은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후대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당과 국가가 로인들과 부모없는 아이들, 장애자들까지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고있는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특히 평양중등학원에 대한 참관은 우리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고있다. 원아들의 구김살없는 모습은 조선의 학생소년들이야말로 복받은 세대들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평양중등학원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원아들의 배움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방문의 나날 나는 조선인민이 수령을 아버지라고,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고있는 참뜻을 잘 알게 되였다.

(2) 평양초등학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에서 중등학원을 먼저 건설하였는데 초등학원도 건설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따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평양중등학원이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의 본보기, 표본으로 일떠선데 이어 평양초등학원도 훌륭히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년 7월 2일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초등학원건설도 와닥닥 달라붙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2016년 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총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집중하는 속에서도 평양초등학원건설만은 중단없이 내밀도록 은정어린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짧은 기간에 연건축면적이 7 870여㎡이고 교사, 기숙사,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초등학원을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7년 2월 1일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의 교사를 돌아보시면서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하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였다고,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으로 되였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고,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돌아보신 며칠후인 2월 5일 원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배움터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초등학원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교직원, 학생들은 원아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혈과 로고가 되새겨져 누구나 눈굽을 적시였다.

참으로 평양초등학원은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솟아난 원아들의 멋쟁이궁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과 평양중등학원에 이어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수도에는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완벽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인터네트홈페지도 조선의 전국도처에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학생소년궁전들이 훌륭히 일떠서거나 개건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현실로 꽃펴나는 조선의 래일은 밝고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탄생하는 조선의 기적과 변혁을 두고 터치는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는 더 높이 울려나올것이다.

3)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배우며 부럼없이 자라도록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철따라 새 교복과 학용품들을 마련해주는것을 국책으로 정하였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학교와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들을 지어주었습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고귀한 결정체이다.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속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사랑의 요람,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꾸려졌다.

학생소년들을 행복의 꽃수레에 태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한 건축물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궁전에는 콤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이 있는 과학동과 수예소조실, 서예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풍금소조실, 성악소조실, 민족기악종합훈련장, 전자악단종합훈련장들이 있는 예능동 그리고 극장, 체육관, 수영관, 합숙을 비롯한 교육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더욱 현대적으로 변모됨으로써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세년년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2014년 5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궁전을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하게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개건하면서 홀과 복도에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여 소조원들과 교원들이 늘 수령님과 장군님을 뵈오면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궁전건물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발을 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계,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개건에서 나서는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투쟁을 벌려 수만㎡의 건축면적에 대한 개건 및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궁전의 내외부를 완전히 변모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2015년 12월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자체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건축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과시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것이기에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조선지도대형사판과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케트《은하-3》모형 등을 설치하여놓고 콤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 과학기술소조실들이 배치되여있는 과학동과 아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궁전소조원들이 휴식도 하고 기량발표회도 할수 있으며 수예와 서예, 악기 등을 배울수 있는 예능동, 2 000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게 꾸려진 극장, 체육관, 수영관 등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개건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웅장화려하게 개건되여 준공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청소년과외교육교양의 최고전당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신동들이다.

가정에서 한명의 아이를 키우자고 해도 숱한 품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간둥이들이 나라의 혜택속에 자라나고있으니 정말 놀랍기만 하다.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그 훌륭함을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세계적수준의 건축물이다.

다른 나라 정부기관청사도 아마 이렇듯 웅장하지 못할것이다.

이런 멋있는 건물을 통채로 아이들이 리용한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춘 궁전의 소조실들에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식사회주의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와의 차이이다.

조선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된 나라, 아이들의 천국이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나라 정부들이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며 그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잘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들을 일떠세우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돌리는 나라는 없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교육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가적인 많은 투자를 돌리도록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신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선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는지, 후대사랑의 훌륭한 본보기가 어떻게 창조되고있는지 전혀 모르고있다.

영국태권도련맹 성원은 학생소년들을 위해 이렇듯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을 세웠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배우는 이곳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에서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싶다, 후대교육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의 정책은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라고 하였다.

스위스공산주의청년대표단 성원은 학생들의 과외활동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며 조선에 대한 서방의 선전이 거짓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정부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디아민족무도경기련맹 위원장은 아이들의 공연은 최고의 최고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학생소년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해주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의 아이들은 만복을 타고난 행운아들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부위원장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이들은 초보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있으며 재능있는 어린이들은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과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고 재능의 싹을 하나하나 찾아 키워주고있다, 정말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필리핀민족무도위원회 집행위원은 아이들을 보배로 여기며 후대교육을 중시하는 나라에는 언제나 밝은 미래가 있다, 조선의 현실이 이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조선의 보다 창창한 래일을 확신하였다고 말하였다.

(2)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학생소년들이 풍부한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세계적인 야영소입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궁전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멋쟁이건축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현대적인 야영각들이 바다가풍치와 조화되여 절경을 펼친 야영소는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야영소에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 등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선데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 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여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때인 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여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주신 조선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2013년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개건할 때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새로 정중히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야영소를 최상급으로 꾸리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야영소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

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준공을 앞둔 야영소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을뿐 아니라 요소요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편리성, 선미학성이 보장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014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정녕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조국의 미래로 내세워주시며 천만가지의 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군민의 뜨거운 애국이 낳은 결정체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가는 곳마다 황홀경이고 보는것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멋쟁이야영소, 건물 하나, 계단 하나, 소개판 하나도 학생소년들의 심리적특성과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야영소이다.

동해명승 송도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하다. 푸른 물 출렁이는 바다, 은모래가 아득하게 펼쳐진 드넓은 백사장,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이 날아예는 곳에 자리잡은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조선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너도나도 모여든다.

야영소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는 《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야영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 흥분과 랑만이 차넘친다.

꿈같은 야영생활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 한번 오면 영원히 떠나고싶지 않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로 커가는 조선의 현실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게 한다.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어로공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는 학생소년들의 꿈이 깃든 집이 있다. 그것은 조선학생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찾아오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이다. 학생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야영소는 기쁨과 즐거움에 잠기게 하는 동화세계인 동시에 미래에로 나래치게 해주는 희망의 집이기도 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로씨야소년야영단 단장은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대들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시고계신다. 온 나라 어린이들을 태여난 첫날부터 국가가 전적으로 돌봐주는 아이들의 천국인 조선에서 체험한 모든것이 꿈만 같다. 우리는 조선학생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왜 그토록 절절하게 부르는지 야영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정말 부럽다.

주체조선의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하며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6. 웃음소리 높아가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러 명승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였습니다.》

인민들의 웃음소리, 이것은 조선에서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집권당도 많지만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당과 국가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고난의 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에서 좋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그 의지에 떠받들려 지난 10여년간에 조선에서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이 땅에 솟아오른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조선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같은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1) 릉라인민유원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릉라인민유원지의 이름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기본입니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한 인민의 유원지입니다.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아니라 곱등어관까지 건설해놓으니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릉라도지구는 명실공히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인 인민의 유원지입니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릉라도는 오래전부터 조선인민의 자랑으로 되여왔다.

대동강물결우에 실실이 휘늘어진 능수버들이 마치도 구슬같이 맑은 물우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하다고 하여 예로부터 릉라도라고 불리워왔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릉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보다 훌륭하게 돋구어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꾸려주실 숭고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릉라도와 관련하여 무려 수십차례에 달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지에 몸소 나오시여 유원지에 심을 나무의 종류까지 선정하여주시며 유원지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릉라도에 위대한 수령님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시려 크나큰 사색과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201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릉라도에 유희장과 물놀이장을 꾸리는데 자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인민을 위한 일인것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유희장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릉라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을 건설하고 유희장까지 건설하면 릉라도가 더 희한해질것이고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유원지건설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2월 4일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이 릉라도 유희장을 맡아 건설하고있는데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유희장기초공사도 잘하고 유희시설설치도 잘하여 유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며 불장식도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잃은 피눈물이 아직 강토를 적시던 2012년 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릉라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과 유희장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는데 그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릉라도지구를 세계일등급의 종합적인 유원지로 멋있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2012년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세차례나 찾으시였다.

그해 4월말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곱등어관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고나서 곱등어관이 멋있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 아니라 희한한 곱등어관까지 건설하여놓으면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는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이 TV로만 보아오던 곱등어교예를 이제는 곱등어관에 와서 직접 보게 되였으니 자신의 마음도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릉라물놀이장과 미니골프장, 릉라도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유원지를 손색이 없이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일은 0.001㎜의 손색도 없이 완전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릉라도지구에 종합적으로 이름을 달아야 할것같다고, 그러나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릉라인민유원지로 부르는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근 100정보에 달하는 부지에 개발된 릉라인민유원지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릉라인민유원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릉라인민유원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완공된 릉라인민유원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평양시에 릉라인민유원지와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 미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근로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준 릉라인민유원지는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며 인민의 랑만넘친 웃음소리를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인민을 위해 대동강물결우에 솟아난 《아름다운 꽃바구니》－릉라인민유원지를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릉라유희장은 유럽에 있는 유희장들 못지 않게 수준이 높고 현대화된 유희장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우리 유럽에서는 유희기구를 한번 타자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 사람들이 얼마 붐비지 않는다.》

《돈많은 부자들도 아닌 평범한 인민들이 저렇게 누구나가 여기와서 웃음을 안고가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전설을 전하고있습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릉라도에 일떠선 릉라곱등어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네팔의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릉라곱등어관에는 **김정은**각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여러 차례 릉라도지구를 찾으시여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을 체현하신 그이의 령도력과 풍모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파키스탄의 한 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곱등어관을 찾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국가가 꾸려준 휴식터들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고있다고 하였다.

몽골의 한 인사는 음악선률에 맞추어 곱등어들이 물면우에 뛰여오르기와 공중공치기 등을 펼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곱등어들의 재주는 볼수록 희한하다, 조선의 근로자들과 함께 잊지 못할 관람을 하였다고 하였다.

민주꽁고의 한 인사는 사회주의조선에만 있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참관하였다, 이곳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들을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2) 문수물놀이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정과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숭엄하게 꾸려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품격과 내용, 건축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서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행복한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선 규모가 대단히 큰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이다.

2012년 3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마음먹고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건설력량편성은 자신이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문수지구에 엘도라도식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문수지구에 반드시 훌륭한 물놀이장을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문수지구에 야외물놀이장과 함께 엘도라도식으로 실내물놀이장을 꾸려놓아 이곳을 세계최고의 물놀이장지구로 만들자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에 따라 문수지구에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건설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설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물놀이장 건설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고무는 군인건설자들로 하여금 문수물놀이장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약과 혁신을 낳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한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들을 창조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 아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문수물놀이장건설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된다는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조선인민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물놀이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세계를 알수 있다.

10만 9 0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이 특색있게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에는 인민들이 사계절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13일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각종 물놀이수조, 싸우나, 샤와실, 편의봉사시설들을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정말 잘

꾸렸다고,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식당들을 여러 단위에서 운영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해당 단위들에서 짧은 기간에 식당들을 특색있게 꾸려놓고 봉사준비를 착실히 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외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놀이장이 문을 열면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이 하루하루 앞당겨져온다는 철의 진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문수물놀이장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물놀이장으로서 자기의 체모를 갖추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도 《세계일등급인 조선의 물놀이장》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주재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글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창조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은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있어 사람들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계속하여 이곳은 찾아오는 인민들에게 더없는 환희와 웃음을 가져다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급강하물미끄럼대에서 미끄러져내려가는 순간 안겨오는 긴장감과 쾌감, 수조에서 긴장을 풀고 물결을 따라 흐를 때의 만족감, 인공폭포가 쏟아져내리는 명산의 모양을 따서 쌓은 아름다운 산천을 감상하는 느낌 등 이곳에서의 체험은 외국의 그 어느 대형물놀이장에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문수물놀이장은 평양의 새 자랑과 긍지로 되였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꽃펴나는 오늘의 현실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문수물놀이장의 한방울 한방울의 물에는 조선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행복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모습이 비껴있는것이다.

그것을 한 외국인이 감상록에 남긴 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듯 훌륭한 시설들은 특권층들만이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조선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시설들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조선식사회주의이다.》

3) 미림승마구락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깊은 관심속에 우리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현대적체육시설들이 세계적수준에서 새로 일떠서고 다기능체육시설인 5월1일경기장과

평양체육관, 청춘거리체육촌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되여 체육인들과 근로자들이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체육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였습니다.》

미림승마구락부는 이 땅에 솟아오른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과 더불어 조선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조선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국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같은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2012년 11월 중순 일요일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여 친히 말을 타시고 승마구락부의 주로를 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로의 상태가 괜찮다고, 이 기마훈련장은 승마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것을 구상하고 해당 부문에 형성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오늘은 훈련장의 실태를 직접 료해하려고 현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마운동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평양시의 곳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로라스케트타는 바람이 불고있는데 승마장이 꾸려지면 승마운동바람도 일어날것이라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훌륭히 꾸려진 승마장에 와서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몸과 마음을 단련할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새로 개건되는 승마장이 미림지구에 있는 것만큼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라고 하여야 하겠다고, 인민군대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승마구락부를 훌륭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무려 여러 차례나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며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2013년 5월초 어느날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승마학교를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승마운동을 통하여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사명이 서로 다른 건물들을 따로 건설하도록 그 위치까지 정해주시고 주로옆에는 키낮은 나무로 생울타리를 치고 잔디주로에는 밟힘견딜성이 강한 금잔디를 입히고 인민들이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뻐스로선도 새로 정하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2013년 10월 중순 또다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인공못주변에 몽금포모래를 깔아주고 인공못에는 물고기를 놓아주어 자연미가 더 살아나게 하자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토사주로에서 말을 타고 달릴 때 먼지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습기보존능력과 살균효과가 높은 조선의 유명한 개성석비레를 소금과 섞어 주로에 깔도록 친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승마주로에 심는 잔디는 생활력과 밟힘견딜성이 강한 조선의 성천금잔디가 제일이라고 알려주시며 그리도 마음기울이시였다.

또한 승마주로의 곳곳에 사람들이 말에 쉽게 오르내릴수 있게 시설물도 설치해주고 승마운동을 하고나서 피로를 풀수 있게 현대적인 피로회복원도 꾸려주며 말관리를 잘하고 말마리수를 늘일수 있게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도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령도아래 마침내 세계적인 승마기지, 인민의 복된 재부가 마련되는 환희로운 현실이 이 땅에 펼쳐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승마구락부를 손색없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승마구락부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것을 약속한 당의 의도가 빛나게 관철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가 어제같은데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완공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기에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방대한 공사를 불과 몇개월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통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최고사령관이 결심하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미더운 인민군대가 있는 한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민헌신의 열렬한 뜻을 깊이 간직하시고 성스러운 혁명활동의 자욱자욱에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새기시며 조선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의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4) 마식령스키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애국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인민군군인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마식령지구에 희한하게 건설한 스키장은 그 건설속도와 질, 규모와 내용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2012년 초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일군들에게 마식령지구에 대규모의 스키장을 꾸릴수 없겠는가를 알아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일군들의 신심에 넘친 답사결과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스키장을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새소리, 물소리만 들려오던 마식령지구에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창조의 거세찬 불길이 타번지게 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전역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스키주로들을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말도 이 령을 넘기가 힘들어 쉬고갔다고 하여 마식령이라고 불리우던 험산 산발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여러 차례나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스키장은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2013년 5월 공사장을 찾으시여 일군들로부터 건설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마식령스키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젖어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이 스키를 탈수 있는 기간이 오래고 주변에 평양－원산관광도로가 있어 교통조건도 편리하다고 하시면서 용감성과 민첩성을 키워주는 스키운동은 전문선수들뿐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마식령스키장이 건설되면 온 나라에 로라스케트바람이 일어난것처럼 스키바람이 불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대화봉의 산발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봉정점까지는 가봐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흔연히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흙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 아슬아슬한 굽이들을 돌고돌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대화봉정점에 오르게 되였다.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주로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이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헤아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규모가 큰 스키장을 10년동안 건설한다고 하는데 인민군대에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 모든 대상공사를 올해안으로 끝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군군인들이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도 영웅적위훈을 세우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호소문을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해 8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는 두차례나 마식령에 찾아오시여 스키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스키장운영을 잘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건설자들은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

가장 숭고한 멸사복무정신에 떠받들려 마식령은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 끝없이 만발하는 문명산악으로 훌륭히 전변될수 있었다.

스키주로의 수와 총연장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들, 직승기착륙장 등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마식령스키장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면서도 훌륭하게 갖추고있다.

위대한 로동당시대가 펼쳐가는 천지개벽을 자랑하며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됨으로써 마음껏 스키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 장쾌한 해돋이와 자연경치를 부감하면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터치는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격동적인 2013년을 빛나게 장식하며 일떠선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이 그 자태와 매력을 한껏 뽐내고있다.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호텔과 봉사 및 편의시설들, 직승기착륙장 등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마식령스키장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면서도 훌륭하게 갖추고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은 오늘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이 되여 나날이 그 이름을 날리고있다.

중국의 TV방송, 신문,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조선의 마식령스키장을 소개하였다.

중앙TV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마식령스키장을 소개하는 편집물을 방영하였다.

방송은 조선에서 새로 건설한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신것으로 하여 누구나 잘 알고있는 유명한 스키장이라고 하면서 그의 지리적위치와 시설물들,

봉사규모, 마식령호텔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되였으며 이 과정에 조선의 새로운 시대어인 마식령속도가 나왔다. **김정은**령도자의 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산세가 험한 마식령에 스키주로들과 거의 60개의 대상들을 건설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온 나라가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무려 5차례나 찾으시여 공사를 다그쳐 끝낼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방송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이 창조한 건설속도를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명명해주신데 대하여 소개하고 마식령속도는 이 력사적전통을 계승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환구시보》와 인터네트홈페지들도 《마식령에서 조선속도 체험》 등의 제목으로 마식령스키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신화망에는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본 기자의 소감이 실렸다.

기자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조선국내외의 관광객들과 함께 세계적인 스키장에서 스키타는 재미와 조선식사회주의의 복리를 체험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은 교통이 편리하며 스키장과 호텔, 의료시설, 직승기착륙장 등 필요한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고있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

련해주기 위해 마식령스키장을 세계일류급스키장으로 건설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에는 고급주로와 중급주로, 초급주로가 있으며 스키애호가들이 리용할수 있을뿐 아니라 세계급의 스키경기도 진행할수 있다. 스키주로를 따라 3분간 지쳐내리면 마식령호텔로 돌아와 휴식할수 있다. 호텔의 환경은 우아하며 화면반주음악실, 수영장, 안마실, 종합상점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로씨야의 따쓰통신도 마식령스키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통신은 **김정은**령도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에는 10개의 스키주로가 있다고 하면서 상세한 소식들을 전하였다. 스키를 처음 타는 초학도들로부터 스키명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스키를 탈수 있다. 저녁시간에도 조명이 비치는 주로에서 스키와 판스키를 탈수 있다. 한 봉우리에는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비행접시를 련상시키는 식당이 있는데 삭도를 타고 그곳으로 오를수 있다. 마식령스키장은 매력적인 겨울철휴식장소이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마식령스키장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건설장을 여러 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있는것은 가장 훌륭한 체육기지이기때문이다.

조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데로 모든것을 지향시키고있다.

이것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희열과 랑만에 넘쳐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에 널리 편집되여 만사람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UPI통신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조선의 대중봉사기지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깊은 관심속에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으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이다, 모든 사실은 조선에 대한 제재가 아무러한 효과도 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전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험의 산악도 다스려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전하며 마식령스키장은 주체조선의 문명산악으로 세세년년 길이 빛날것이다.

5)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의 슬기와 재능이 비낀 삼지연시 소재지와 농촌마을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중평남새온실농장, 과학기술전당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은 창조물들은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 모습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게 하는 주체건축의 대걸작들입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펼친 자력번영의 활로따라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시위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별천지가 산골군인 양덕땅에 펼쳐졌다.

하루빨리 사회주의전면적부흥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이민위천의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수수천년 묻혀있던 양덕의 산간벽지가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는 온천문화휴양지로 웅장하게 변모되였다.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와 호상성, 련결성, 실용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현대적인 봉사시설들과 단층, 다층살림집들, 스키장, 승마공원 등이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형성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조선식건축, 조선식건설의 본보기이다.

양덕땅의 천지개벽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며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위대한 결정체이며 당의 명령지시라면 일심분발하여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조선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의 힘, 자력으로 부흥하는 조선의 국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새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전국의 온천분포도도 깊이 연구하시며 온천문화휴양지개발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으시였다.

2018년 8월과 10월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련이어 밟아보시며 온정리 일대를 온천휴양의 적지, 명당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천문화휴양지개발사업을 전국의 본보기로,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급으로 높은 수준에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건설을 맡아하여야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속에 인민군대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온천문화휴양지건설의 주력으로 되였다.

2019년 4월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변에 스키장까지 건설하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스키장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과 10월, 11월에 련이어 진행하신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현지지도는 인민을 위한 새 문화창조의 전구를 더욱 뜨겁게 달구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층층으로 늘어선 외랑을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조하고 실내온천장의 내부형성을 인민들의 감정정서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스키주로의 폭을 넓히고 원림록화를 관상적효과와 경제적가치가 있게 하며 말타기도 할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더 꾸리는 문제 등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한 령도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에 달한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의 직접적인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찌는듯한 삼복철에도 찬서리내리는 가을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시였으며 월별, 주별, 일정별 공사계획까지 작성해주시면서 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양덕대전의 승리의 원동력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 장병들과 평안남도, 강원도의 인민들은 2018년 11월 양덕전구에서 대건설

의 첫 포성을 울리였다.

166만여㎡에 달하는 부지에 일떠세우게 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방대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명령지시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는 인민군군인들이 인민군대특유의 투쟁정신, 창조본때로 기본건설대상인 온정리일대의 온천휴양지구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 폭풍같은 기세로 진입하였다.

휴양지를 지대적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온천문화에서도 세계적인 문명을 압도하기 위해 지혜와 정력을 총발동하여 산골짜기를 따라 려관구획, 치료 및 료양구획, 휴양구획, 종합봉사구획, 야외온천장구획, 스키장구획, 살림집구획 등 웅장화려하면서도 특색있는 건축군을 형성하였다.

현대미와 고전미를 잘 살린 려관, 치료호동, 료양호동, 야외온천장들과 아아한 산정에서 뻗어내린 스키주로, 승마공원을 비롯하여 매 구획배치와 건물들의 모든 구성요소가 건축미학적으로 완벽하고 자연환경과 친숙하며 호상결합성이 정교하게 보장된것은 주체건축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아로새기였다.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의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은 드디여 완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2019년 12월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당은 인민을 현대문명에로 이끄는 향도자, 인도자라고 하시면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령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조선로동당만이 안아올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였다.

참으로 양덕의 산간벽촌에 펼쳐진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 조선식의 독특한 온천문화는 만난시련속에서도 조선인민에게 새로운 문명을 끊임없이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인민관과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우에 솟아오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는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며 터치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며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선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용용장엄하게 솟구쳐오를것이다.

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신 휘황한 설계도따라 조선인민이 리상하는 강국의 문명과 무궁한 번영의 변천사를 아로새기며 동해의 명승명사십리에 조선식의 해안관광도시, 인민의 문화휴양지가 웅장화려하게 솟아났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조선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천하절경을 이 땅우에 끝없이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는

수수천년 자연의 경관으로만 여겨오던 동해기슭에 국보급의 해양공원, 호화로운 대장관을 떠올리였다.

해안지대의 특성에 맞게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 조형성이 원활한 각이한 규모와 독특한 형태의 호텔과 려관들,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 등이 황홀한 건축미를 이루며 꾸려지고 국내외의 손님들을 위한 관광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조선의 관광산업의 대표작이며 사회주의문명의 축도이다.

이 땅우에 세기적전변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발전전략을 펼치고 눈부신 륭성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로 갈마반도에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움으로써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조선특유의 무진한 발전잠재력, 조선식 발전속도가 어떤것인가를 만천하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동해명승지의 아름다운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문명부흥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솟아오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과 리상실현에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선물이다.

인민의 행복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시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최상의 락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해의 명승지에 세계적경지의 문화휴양지를 훌륭히 꾸리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였다.

자연풍치가 아름답고 바다기슭을 따라 십리나 되는 모래불이 펼쳐져 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뛰여난 경관으로 일러오고있는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는 생태환경적으로나 해안환경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의 이름난

관광지들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한 명소이다.

오래전부터 경치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편성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는 설계형성안에서부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현대건축의 표준으로 되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거리형성안을 연구하시고 해풍이 불어치는 건설현장에서 설계를 손색없이 완성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였으며 방대한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형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관광지구를 자기의 황홀한 자태와 현대미를 한껏 자랑하는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 최상의 해양공원으로 꾸리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은 무려 수천건에 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부강설계연구소, 선진설계연구소, 평양건축대학 건축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설계가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4만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공사에 착수한 첫해에만도 세차례나 건설장을 찾고찾으시며 관광도시건설의 전 과정을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려정은 끝이 없었다.

2018년 5월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에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진척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전반실태를 료해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면서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와 마가을의 찬서리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18년 8월과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단행하신 현지지도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선의 고유한 멋이 두드러지게 살아나는 조선식 관광업발전의 본보기적실체로 일떠세우는데서 일대 전환을 안아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와 시공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하시면서 건물들사이의 련결과 건축구성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변화를 더 조화롭고 특색있게 하며 호환성을 잘 맞추고 련결성을 보장하는 등 전반적거리형성을 예술적으로 세련시켜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고층종합청사형식의 사무건물과 덩지가 큰 호텔들, 층수가 높은 려관들을 건설하며 영화관, 전자오락관을 비롯한 각종 봉사건물들을 추가배치하여 높낮이배합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건물들을 기단층으로 련결시켜 거리형성을 조선식으로 독특하게 하도록 하신것은 명사십리의 전변을 위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종합주차장을 크게 건설하고 갈마역을 개건하며 원림조성사업과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등 건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적인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갈마반도가 제일가는 명소로서의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게 되였다.

주변환경에 어울리고 자연미가 나는 인공못들과 낚시터, 즐비하게 늘어선 봉사시설들, 백사장의 해수욕구획들에 꾸려진 구급의료시설들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이 뜨겁게 응축되여있다.

2019년 4월 이른새벽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로력을 들여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것만큼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물들의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건물을 쓸모있고 리용에 편리하게 최적화하는 원칙에서 설계하고 최대한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살아나게 건설할데 대한 문제,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유보도, 궤도전차로선, 자전거도로를 잘 형성하며 축전지차도 많이 만들어 보내줄데 대한 문제, 별장식숙소들에 부유식잔교도 만들어주어 배도 탈수 있게 할데 대한 문제,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알수 있게 건물들과 곳곳에 야외시계들을 설치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 어느곳이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2024년 7월 16일 인민의 문화관광지로 나날이 변모되고있는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운영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사운영능력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봉사단위들을 선정하며 운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문제, 관광지구의 수용능력에 맞는 주차능력보장문제, 유희공원건설문제, 문화생활구역형성문제, 오물 및 오수처리능력확보문제, 봉사업종별에 따르는 전문가양성문제, 물자보장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나날까지 또다시 동해의 명사십리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사능력과 수준이자 관광지의 가치이고 그 전망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봉사업종들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적수준의 봉사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 관광산업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안겨주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동해명승 명사십리의 천지개벽을 안아왔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따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조선식의 독특하고 현대적인 해안관광도시로 꾸리기 위한 대건설사업이 빠른 속도로 벌어지게 되였다.

조선인민에게 새라새로운 행복과 문명을 하루한시라도 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을 받들고 떨쳐나선 군민의 억센 의지와 견인불발의 투쟁에 의해 갈마전역은 시작부터 들끓었다.

동해의 모래불우에 옹근 하나의 도시를 일떠세워야 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과제였다.

관광지구에 해안가의 풍치와 어울리게 각양각태의 현대미를 가진 근 2만명 숙박능력의 호텔, 려관, 민박숙소, 별장식숙소들과 종합청사, 관광안내소, 재정금융사, 건강운동관, 극장, 영화관,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한 각종 봉사건물과 관리건물들을 포함한 수백동의 건물을 일떠세워야 하였으며 연건평은 144만 9 100여㎡에 달하였다.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뻗어간 명사십리백사장에 하루수용능력이 무려 4만여명에 달하는 해수욕장과 관광객들의 편의보장을 위한 봉사시설들, 1만 9 600여m의 도로, 4 780여m의 해안유보도석축, 1만 5 000여m의 수로 등을 완공해야 하는 조선의 해양공원건설력사에서 아직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창조대전이였다.

2018년 3월중순 착공의 첫 포성이 울린 때부터 공정별작업들이 전

격적으로,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정신이 갈마전역에 새 기준, 새 기적창조의 열기를 더해주는 속에 새로운 건설성과들이 다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온 건설장이 격동의 도가니로 화하는 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욱 넘쳐나게 될 세계적수준의 명사십리야외물놀이장과 여러 형태의 려관, 숙소, 공공건물들이 경쟁적으로 일떠섰다.

위대한 조선인민을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는 군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 드디여 동해명승지에 조선식의 해안관광도시가 황홀하게 솟아올랐다.

명사십리의 창조물들마다에는 이 땅에 건설하는 모든 건축물은 조선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창조되고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해야 한다는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사상이 응축되여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발전면모와 수준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해수욕과 경치부감에 편리하게 바다가에 접근배치되였을뿐 아니라 립체감이 한껏 살아나는 각양각이한 호텔, 려관, 숙소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키돋움하며 솟구쳐올라 해안가풍치가 볼수록 장관을 이루고있는 관광명소에서 조선인민은 해양문화를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였다.

2025년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결짓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들중의 하나로 기록될 경이적인 실체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의 관광문화를 확립하는데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선도적역할을 감당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식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 철리가 다시금 확증되였으며 조선인민이 바라는 창조와 문명의 높이가 얼마나 거창한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조선의 명승,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속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기쁨과 랑만의 심리해안으로, 인파심리로 세세년년 자랑스러운 명함을 떨치게 될것이다.

맺 는 글

이 글에서 취급되는 건축물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조선에서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지금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몰라보게 변해가는 조선의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사상이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로 된다.

희한한 현실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조선, 약동하는 평양의 새 모습을 본 외국의 벗들의 경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웨브싸이트에 조선의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 같은가?〉 라는 물음과 함께 실었다.

이 물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홍콩이나 상해, 마카오의 건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선의 건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후 내가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 고 하면서 저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이 말은 브라질의 빠뜨리아 라띠나신문사 사장이 한 체험담의 일부이다.

이것이 어찌 브라질인사 한사람의 고백만이라 하겠는가.

우루과이 3월26일운동 지도부인사와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도 평양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고 흥분을 금할수

없다, 발전하는 현대적건축물들은 약동하는 조선의 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앙골라 에메신문사 편집부장은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를 볼 때마다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자기의 사상과 신념, 웅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이처럼 훌륭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훌륭한 모든것을 무시하고 조선에 대한 거짓선전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고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일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알게 된다면 그 나라 정부는 다음날로 전복될것이라고 하였다.

체스꼬신문 《쁘로스쩨욥스까 쁘라브다》는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미국의 악선전과 매수된 《증인》들, 반역자들에 의해 꾸며진 《증거》자료들이 이제는 낡은것으로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는 조선에 대한 악선전에 동화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유럽나라들이 붕괴된 후에도 미국의 갖은 공격과 식민지화 정책에 꿋꿋이 저항하였으며 자기 식대로 생활을 꾸려왔다, 조선의 현실을 담은 사진들은 조선에 대한 허위선전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될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려거든, 조선의 건축이 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으로 되는가를 정확히 알려거든 이 땅에 와서 믿기 어려운 조선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보고 느낄수 없었던 더 많은것을 알고 체험하게 될것이며 이 글에서 다 담지 못한 인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것이다.